

The Magazine for TOP Business Leaders

CEO



Cover Story

인간중심조명 세계의 중심을 비추다

이경재 삼진엔디 회장

CEO& Special

FINANCE WAR

AUGUST 2015

가격 12,000원



CEO PARTNERS
www.ceopartners.co.kr

본지는 대한항공 국내외 VIP라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소장품으로 전시중인 '살림'(2009).

설치미술가 양혜규 Haegue Yang

뉴욕 현대미술관 ·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

Editor 정달운 Cooperation 국제갤러리(www.kukjegallery.com)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양혜규 작가의 작품들이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살림(Sallim)'이 선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 작품을 구입한 MoMA는 이번 소장품전에 이 작품을 6년 만에 대중 앞에 내놓았다. 상설전 제목은 '새로운 유산을 위한 현장:현대 미술(Scenes for a New Heritage: Contemporary Art from the Collection)' 전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장장 1년간 관람객을 맞는다. 이 기획전은 지난 30년 동안 미술관의 현대미술 소장품 중 정치·사회·문화적 흐름에 접근한 혼합매체 작품들을 선별해 마련했다. 작가가 살던 베를린 집의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것으로 부엌이라는 공간이 '살림'이 펼쳐지는 장소로 표현된다.

또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6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양혜규의 대표적 블라인드 설치작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제목은 '스토리라인:구겐하임의 현대미술 (Storylines:Contemporary Art at the Guggenheim)'.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 중인 '일련의 다지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2009).

올해 국내에서 5년 만에 열린 개인전(삼성미술관 리움)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전시를 성공리에 마친 그의 블라인드 설치작 '솔 르윗 뒤집기'는 프랑스 리옹비엔날레에 다시 출품되며, 하반기에는 중국 울렌스 현대미술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올해만 전 세계 비엔날레와 미술관 20여 곳에서 전시를 한다. 현재 알렉산더칼더재단이 운영하는 프랑스 한 아틀리에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는 서울대 미대 졸업 후 1994년 독일로 유학갔다. 설치와 평면 입체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미술관 작가'다. 서구적인 문법으로 아시아적 정서와 문화를 밀도 있게 표현하는 양 작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일상적인 한국적 오브제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